

중국 민족주의의 발전과 21세기 동아시아 평화

이진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요약 |

19세기 이래 중국의 민족주의는 각 시대에 맞게 변용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전통적인 화이관에 기초한 중화질서가 해체되면서, 서구적인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중국에서도 민족주의가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초기의 민족주의는 반청, 반외세를 기반으로 하는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였다. 이 한족중심의 민족주의는 중화민국이 성립되면서, 그 영역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을 어떻게 포함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대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단지, 항일운동 과정 중에 예전 중화질서의 일부로 조공국가로 여겨졌던 주변국가에 대하여는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이런 동등성은 동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일부에게는 인정되고, 일부 중국 국내의 민족들에게는 보류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공산 중국에 들어서 논의된 첫 의제는 다민족 국가의 구성과 연관된 중화민족 개념의 형성이었다. 중화민족은 이제 한족을 제외하고도 55개 소수민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초기의 새로운 중화민족 역사의 재구성은 개혁개방기에 들어서면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개념으로 변모하면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나, 역사의 재해석 면에서나 중화민족주의를 재구성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화민족주의는 다시금 확대되고 있다. 화교가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포함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

에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명제가 정책의 목표가 될 정도이다. 중화민족 개념이 가지는 모순성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 출신의 화교를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파악하자는 입장이 나타난 정도로 그 개념은 확장되고 있다. 그 결과 한족이 중심이 되, 새로운 중국인의 형성이라는 공산중국의 중화민족 개념은 웨스트팔리아적인 nation의 구성을 넘어서, 이제는 과거 중화질서로의 회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에 이르렀다.

문제는 현재 중국이 점차 강대국화 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민족주의가 보여주는 현재의 공세적이고 배제적인 성격이 변용되지 않는다면, 주변국가와의 분쟁요소가 상존하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좀 더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하는 국력에 걸맞게 좀 더 공세적으로 변하면서 주변국가에게 중국의 민족주의에 복종토록 요구할 것인가? 그 해답은 아마도 동아시아에서 민족주의 경향을 완화하려는 상호 노력에서만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I. 중국에서의 민족주의의 개념과 21세기 중국 민족주의

현재까지 공산중국에서 민족주의(민족주의, *minzuzbuyi*)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개념이다. 민족주의에는 항상 두 가지가 용어가 수반되었다.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 *dabanzuzbuyi*)와 지방민족주의(地方民族主義, *difangminzuzbuyi*)가 그것이다. 전자가 다민족(多民族) 국가인 중국에서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인구집단인 한족(漢族)의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나머지 구성원인 55개 소수민족의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의미한다. 한족의 민족주의란 주체민

족이라는 한족이 인구의 수와 정권 장악의 우월성을 믿고, 소수민족 지역에서 차별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대한족주의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못하는데 반해, 지방민족주의는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것은 ‘중화민족 대가정(中華民族 大家庭)’인 중국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 ‘중앙’의 통일적 영도를 무시하고, 분열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중앙의 즉 공산당 중앙 영도의 정책적인 노선에 반하여 행동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지방민족주의가 시기적으로 유연하게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중앙의 영도적인 정책의 강압적인 면이 나타나면, 지방민족주의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가령, 문화혁명기에 가해진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중앙의 정책이 느슨해진다면, 소수민족의 자치적 성격은 강해질 수 있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민족주의가 가진 부정적인 내포로 중국에서는 민족주의라는 용어보다는 애국주의(愛國主義)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애국주의란 국가(國家)인 중국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함으로 사실상 민족(民族)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는 민족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럼으로 중국에서 민족주의는 용어상으로 구별하여 정의한다면, ‘중화민족 국가(中華民族國家)의 중화국가주의(中華國家主義)’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중화민족국가의 국가주의는 공산 중국에서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즉, 앤더슨(Anderson)의 개념을 빌린다면,¹⁾ 중국에서의 민족주의는 ‘상상의 산물’로 현재도 공산당에 의해 만들어

1) 민족주의는 사실상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근대화론자의 대표적인 견해이다.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London:Verso, 1991).

지고 있는 '작위적인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민족주의 개념은 지구상의 다른 국가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특징을 몇 가지 열거하면, 첫째, 중국에서의 민족주의 개념은 국가에 의해 정치적으로 정의된다는 점이다. 민족주의가 가지는 부정적인 면을 배제하고, 국가가 추구하는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중화민족'을 개념화하고, 이 개념을 이용하여 중화민족의 민족주의를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환치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이런 작위적인 경향은 중국의 민족주의가 중국 공산당의 정책 변화 특히 소수민족 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전개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지방민족주의화 할 수 있는 소수민족들을 중국에 통합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개념인 중화민족국가 애국주의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여러 정책적인 수단이 강구되고, 이런 정책은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에서 그 모습을 극명하게 보이고 있는 점이다.

셋째, 중국이 새롭게 구성하고 이 민족주의 개념은 단순한 현재의 얘기가 아니고, 과거 역사를 재해석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한국에서 동북공정으로 알려진 역사의 재해석 작업은 중국민족주의의 정책적인 현재형이다. 후에 상술할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이루기 위한 역사의 재구성 작업은 공산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개혁개방 시기에 그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후진타오시대 역사 예외가 아니다.

간략하면 중국의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의제로 국가에 의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독특한 성격의 민족주의이다. 이런 중국의 민족주의가 점차 세계화하는 21세기 동아시아에서 평화구축을 위한 한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동아시아 평화를 기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중국 민족주의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본 후, 21세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중국 민족주의의 역할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중국 민족주의의 발전과 변화과정

중국 민족주의의 발전과정은 중국이 서구적 의미의 국민국가를 완성해가는 과정과 일치한다. 즉, 중국에서 민족주의는 외세의 침탈에 대항하는 저항민족주의의 성격과 함께, 당시 세계의 조류였던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nation-state)를 이루는 성격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즉, 외부에 대한 반응으로의, 그리고 적극적인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발전해왔다. 반면, 반(半)식민지를 벗어나 국가를 이룬 공산 중국에서의 민족주의는 내부적인 통합의 기제이다. 국가의 여러 다민족 구성원을 새롭게 정의한 ‘중화민족’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통합의 요소로써 민족주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중국 민족주의의 발전과정은 여전히 주권국가 중심이 되어 구성되는 웨스트팔리아 국제체제와, 그 속에서 프랑스 혁명의 이상인 국민국가를 이룩하려는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과정이기도 하다. 웨스트팔리아적인 국제체제가 서구의 아시아에 대한 진출과 함께 중국에 일방적으로 적용된 외세의 영향이라면, 국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의 정치체제를 향한 중국인들의 상호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점은 현재까지 중국이 큰 틀에서는 여전히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체제를 벗어나

지 못했고,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국가란 프랑스 혁명과 함께 나타난 국민(nation)에 기초한 국가이다. 그런데, 이 nation이란 개념은 서구적 의미와 동아시아에서의 적용이 다른 개념이다. 서구적 의미의 nation은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봉건국가나 절대군주국가 등 여러 형태의 국가들에서, 그 구성원이 개별적인 정체성을 부여받지 못한 종속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극복하는 '과정의 개념'인 것이다. 즉, nation은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치적이지 자유로운 시민적 문화(civic culture)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여기에서 nation의 개별적인 구성원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함께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nation의 구성원들인 시민(citizen)이 주축이 되어 새롭게 구성된 국가가 국민국가인 것이다. 즉, nation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민족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단일 종족집단(ethnic group)에 기초하든 여러 종족집단이 통합되든 새로운 형태의 집단의 창출인 것이다.²⁾ 가령 대표적인 프랑스의 경우, 나폴레옹이 취한 조치는 상징적으로 지역(region)을 해체하고, 지구(department)를 만든 것이었다. 지역이란 주로 한 종족집단이나 혹은 지역적인 정체성이 강한 구분이었다. 가령 전통적으로 바스크, 브레타뉴, 그리고 프로방스 등은 소위 종족적으로 프랑스의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지역이었다. 개별적인 정체성이 강하고, 중앙과의 관계도 각각 구별되는 특징을 가졌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국민국가는 프랑스인(French)이라는 것을 창출하고자, 이런 지역적인 구별을 지구적으로 변화시켜 중앙에 종속시키고(중앙집권), 국민국가의 특징인 보통

2)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은 Anthony Smith, *Theories of Nationalism* (London: Duckworth, 1983)를 참조하라.

교육을 통해 새로운 nation에 대한 교육을 하였으며, 프랑스인(French nation)에 의한 프랑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였다. 이 국민국가는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에 의해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유럽의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제체제를 창출하였다. 즉, 19세기 이래 서구의 국제체제에서 가장 보편화된 정치적 형태로 민족주의(nationalism)의 동력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즉, 국민(민족)과 민족(국민)주의는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된 19세기 이래의 한 특징이며, 20세기에 들어서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소위 제 3세계로 확산된 국가 형태이자 개념인 것이다.

문제는 이 nation에 기초한 민족주의가 동아시아에서는 서구의 침탈과 함께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nation의 개념이 새롭게 창출되는 국민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종족적인 특성이 ‘재발견되고(rediscovered)’ 강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독특한 특색을 보였다는데 있다. 그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지는 개별적인 특성과 함께, 동아시아에서의 민족주의 수용이 사실상의 변용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nation은 일본에 의해 ‘민족(minzoku, 民族)으로 번역되었다.³⁾ 새롭게 일본에서 창안된 이 개념은 하지만 종족적인 요소가 강하게 내포된 것이며, 서구의 경험과는 달리 권리와 의무에 기반을 둔 시민적인 것이기보다는 국가적인 것이었다. 즉, 외형은 웨스트팔리아적 국민국가 체제를 이루기 위한 원동력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시민적인 문화가 결여된 형태의 것이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민족으로 그리고 중국에서는 minzu로 동일한 일본의 용어를 차용하였고, 그렇게

3) 메이지시대 일본의 신조어로 1873년 가토 히로유키가 독일어로부터 번역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

범주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nation의 민족으로의 범주화 과정은 동아시아의 역사적 굴곡에 따라,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양상 또한 변모시켰다. 즉, 외세에 대한 저항을 통해 세계체제의 일원이 되는 국민국가의 수립이라는 대 명제가 중심이 되었고, 그 속에서의 nation의 형성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즉, 중국의 민족주의는 서구의 민족주의와는 구별되는 특색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와도 구별되는 중국적인 특색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그럼으로, 이 장에서는 중국민족주의가 형성되는 국내적 동인을 살펴본 후, 이 중국 민족주의가 동아시아의 민족주의와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 후, 공산 중국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화민족주의의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국내적 영향: 중국 민족주의의 형성 초기

중국에서의 민족주의의 형성은 청(淸)말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 당시 형성된 중국 민족주의가 가졌던 한 특색이 현재도 중국 민족주의의 중요한 모순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현재 한족(漢族)으로 칭하는 중국인 중심의 종족적 민족주의이다. 중국 민족주의는 그 시원 자체가 사실상 국수주의적인 한족의 민족주의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일본과 구별되는 중국의 민족주의의 가장 큰 특색은 이중적(二重的) 저항민족주의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민족인 만주족이 세운 청을 극복하여, 새로운 국민국가를 형성해 한다는 내부적인 요인과 함께, 당시 점증하는 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독립국가

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요소가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만주족과 구별되는 한족의 중국이라는 것은 사실상 중화의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전통으로의 회귀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⁴⁾ 동시에 그것은 새롭게 한족이라는 종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서구의 반(半)식민지화에 대항하여 중국을 근대적 의미의 국가로 만드는 것은 중국의 민족주의가 지향하는 한 목표였던 것이다. 그럼으로, 중국에서의 민족주의는 시원과 형성과정에서는 한족의 재구성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목표에서 독립국가의 형성을 위해 반(反)외세, 반(反)외국인적인 특색을 가지게 된 것이다.

먼저 '한족'의 민족주의는 국수주의적인 '한족 만들기'로 나타나게 되었다.⁵⁾ 장병린과 유사배로 대표되는 국수학파는 화하족(華夏族)과 이민족을 철저히 구별하였다. 마치 전통적인 중화질서가 추구했던 화이(華夷)론과 유사한 개념으로, 화는 문화와 문명의 중심으로, 이는 야만과 변방으로 특징지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시 청은 문화수준이 열등하게 낮은 야만의 만주족이 만든 나라로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며, 그 극복에는 하나라 이래로 중화 문화의 중심에 있는 화하족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화하족이 만든 새로운 국가가 중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병린의 중화민국(中華民國)의 국호와 중화민족(中華民族)의 민족개념 그리고 양계초의 대중화민주국(大中華民國)의 개념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⁶⁾ 여기에서 창출된

4) 유교체제와 그 변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Joseph R. Levenson, *Confucian China and its Modern Fat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8).

5) 천성림, 『근대중국 사상세계의 한 흐름』(서울: 신서원, 2002)의 제1장을 참조하라.

새로운 중국은 중국 내부적으로 전통적으로 존재하였던 소수민족 그리고 중국 외부의 인접국가의 민족을 배제하고 구별하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지금 공산 중국에서 소수민족을 포괄하는 다민족이 결합한 중화민족의 민족주의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중국 민족주의 형성과정의 특색은 반외세주의(anti-foreignism)이다.⁷⁾ 아편전쟁 이래 서구의 경제적 영토적 침탈은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손상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및 외국 세력에 대한 배척이라는 특색이 나타나게 되었다. 의화단의 난에서 서양인에 대한 살해나 기독교 선교사의 구축 같은 양이(洋夷)적인 인식은 전통적인 화이론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으로 중국에서의 민족주의의 형성과정의 시초는 중국 내외의 주변민족에 대한 내부적인 배제를 통해 한족을 형성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외세에 대한 저항을 통하여 한족의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닦친 두 가지의 딜레마였다. 하나는 당시 청의 강역에 존재하는 만주족을 포함하는 소수민족을 어떻게 근대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범주화할 것인가 하는 점과, 서구적인 국제질서의 일원으로 중국을 위치시키는 경우 반외세주의와 어떻게 절충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는 끊임없이 1900년대 전반기 중국인들에게 제기된 의문이었다.

6) Kai-wing Chow, "Imposing Boundaries of Blood: Zhang Binglin and the invention of the Han 'Race' in Modern China" in Frank Dikotter, ed., *The Construction of Racial Identities in China and Japan* (London: Hurst & Company, 1997), pp. 34-52.

7) Kwangsheng Liao, *Antiforeignism and Modernisation in China*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96), pp. 7-14.

한족중심적인 국수주의에서 출발한 중국의 민족주의도 이러한 도전을 맞이하여 여러 대안을 모색하였다. 가령 신해혁명의 주역이자 중국의 국부인 손문은 청의 강역 및 국민을 계승하여야하는 중화민국의 입장에서, 중국민족의 구성요소로 한, 만(만주), 몽(몽골), 회(회족, 무슬림), 장(티벳)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손문의 다섯 종족에 의한 공화국인 중화민국이라는 5족공화(5族共和)의 논리는 매우 정치적이고 간명한 것이었다. 그는 “한족인구에 비해 한족이 아닌 자는 적으며... 그러기에 중국은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신이 주장하는 5족공화론에서 제기된 다섯 구성요소인 민족개념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며, 한족의 민족주의가 중심이 된 중국민족주의를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 즉, 장병린이래 양계초를 거쳐 완성되어가는 한족 중심의 배타적인 한족 민족주의를 중화민국이라는 국가의 형성과정에서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환치시키고자 하는 절충적이며, 과정적인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다. 손문을 계승한 장개석의 경우는 더욱 정치적이였다. “중국에 사는 모든 거주민은 동일한 핏줄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간의 차이는 지역적 종교적 차이이지, 종족이나 민족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⁸⁾ 이는 중국의 한족민족주의를 중화민국의 국민주의로 환치시키면서, 국민이나 민족(종족)간의 구별도 무시하는 매우 정치적인 발언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민족주의 형성은 종족적인 특색에서 출발하였다. 여타 주변민족과 구별되는 우월하며, 역사적 존재인 화하족을 계승

8) June Teufel Dreyer, *China's Forty Millions. Minority Nationalities and National Integr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pp. 34-52, p. 16.

한 한족을 새롭게 구성하는 국수주의적 경향을 시원적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이 한족의 민족주의는 반만주와 반외세라는 두 가지의 대상에 의해 더욱 공고해지는 개념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중국민족주의의 실제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국수주의적 한족의 민족주의는 여러 소수민족을 포괄하여야 하는 신생 중화민국에서는 변용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등장한 개념이 중화민족이다. 하지만 소수민족은 정치적으로 주요 지도자에 의해 정의되어진 중화민족의 일원일지 모르나, 실제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배제된 상태였다. 즉, 초기 중국의 민족주의는 한족의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발현된 시기였던 셈이다.

2. 동아시아와의 관계: 구별과 포섭의 이중주

사실상 한족만의 중국 민족주의가 일차적인 변용을 거치게 된 것은 동아시아와의 관계 속에서였다. 즉, 일본의 중국침략이라는 요소와 식민지화한 한반도의 민족과의 공동 항일전선 그리고 중국 주변부에서 나타난 반식민지화 및 소수민족과의 관계 처리과정에서 중국민족주의는 좀더 정교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제일 먼저 중국민족주의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당시 중국의 한족민족주의 개념으로는 포괄될 수 없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화이론을 계승한 한족의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단순한 야만과 낮은 문명의 오랑캐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서구와 동일한 외세로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은 일본이 중국을 지나(支那)로 범주화하여 전통적인 동아시아 중화질서를 부정하고, 형식적으로 동등하지만 오히려 중

국을 열등적인 존재로 위치시키면서 더욱 촉발된 측면이 있다. 즉, 일본 중심의 동아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중국침략을 자행하게 되면서 중국민족주의는 일본을 서구와는 구별되지만 외세의 범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저항하는 성격을 가졌던 것이다.

1919년 5·4 신문화운동부터, 1931년 만주사변과 일본의 만주점령 그리고 1937년 중-일 전쟁으로 이어지는 중국민족주의의 주요 고비는 일본을 극복하는 문제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이 과정은 중화민국을 이루는 국민당과 반군세력에 불과한 공산당의 중국민족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유와 실제적인 결과가 어찌되었던 공산당은 끊임없이 민족주의를 국민당과 일본에 대항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국제사회에서 국민당의 국제법적인 준수는 친일적인 행위로 수시로 모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산당은 그 세력범위를 넓혀 나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서안사변과 제2차 국공합작(國共合作)이다.⁹⁾ 제2차 국공합작은 항일 민족주의가 기본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당과 공산당과의 합작이며, 이 합작을 통해 공산당은 기사회생하고 결국 정권을 차지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모순적인 입장이 중국민족주의 변용의 일차적인 요인이었다면, 식민지화한 한반도에서 온 조선인과 중국공산당의 조-중 통일전선(朝-中 統一戰線)은 또 다른 중국민족주의의 변용요인이었다. 그것은 또한 중국민족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한족중심의 중화질서적인 요

9) 동북군벌 장학량이 서안에서 장개석을 구급하고 공산당과의 합작을 통하여 반일전선을 구축하고자 한 사건이다. 주은래의 중재로 장개석은 2차 국공합작을 약속하고 풀려났다.

소의 한 축이 사실상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화이질서에서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조공관계로 특징지어졌다. 그것은 국가간 서열이 있되, 조공과 하사(下賜)라는 상호간의 행위가 결합된 외교상의 절차였다. 중화질서에서 그 범주로 파악되는 조공국가는 오늘날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예부(禮部)에서 관장하였다. 즉, 독립적인 국가 하지만 중국적 질서에 종속된 국가로 조공국가를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청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인한 조선의 개국과 서구적인 질서로의 편입을 받아들이지 않고, 1894년 청일전쟁 시기까지 일관되게 조선의 속국론을 주장하였다. 조공관계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이 논의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화하자 내재화되면서 변용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침략에 저항해야하는 입장에서, 특히 그 침략이 가장 처음 가시화되었던 만주(중국의 동북지역)에는 조선을 이탈한 수십만의 조선인들이 일본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던 것이다. 특히 1931년 만주사변 후, 조선인들의 독립운동과의 연대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고, 여기에서 중국 공산당은 조선의 독립은 말할 것도 없고, 만주에서 조선인들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¹⁰⁾ 이는 중국민족주의가 조선 혹은 한국의 민족주의와 조우하여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로 관계를 설정하는 사건으로, 전통적인 중국적 질서에서 조선이 탈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라는 국가의 영토적 범주에서 현재의 중국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계기가 되며, 그 외의 조공국가 관계에 있

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진영, “조선인에서 조선족으로: 중국 공산당의 연변지역 장악과 정체성 변화(1945-1949),” 『중소연구』, 제26권 4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2년 12월)을 참조하라.

던 나라들은 그 영역에서 제외하는 개념의 변화를 가져온다. 일본에 이어, 주변 국가의 독립적인 정체를 중국민족주의가 받아들이는 것이었으며, 거기에서 나아가 인접지역 민족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새로운 관계 정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항-일 연구의 실제적인 구조에서는 중국민족주의의 한족 중심적 성격이 표현된다.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에서 국제전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여기에는 조선을 비롯한 인접민족의 공산주의자들도 포함되었다. 특히, 대만, 베트남, 몽골, 위구르, 조선인 등은 그 위치가 독특하였다. 당시 공산주의의 성격상 국제주의적 연대가 일반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사실상 다른 국가의 식민지였던 이들 민족의 공산당원에게는 지역적 성격에 따라 중국민족에의 포함범위가 변모한 것이다. 일례로, 대만의 경우 사실상 모택동 공산당의 본거지인 연안(延安)에서 중국 본토와는 구별되었지만, 후에 중국의 일부로 주장되어진다. 위구르인들의 경우도 동일하다. 반면, 베트남은 분명하게 외국으로 구별된다. 하지만, 조선과 몽골의 경우는 중간적이었다. 한반도의 국가와 몽골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해서는 외국으로 인정하나, 중국 경내의 두 민족에 대해서는 대만이나 위구르인들과 같이 일부로 간주하는 개념이 발전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중국의 민족주의가 중화적 세계 질서에서 받아들이는 요소와 배척하는 요소가 선명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영토적 경계에 따라 중화민족주의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 중국의 영토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 거주하는 동아시아 민족들에게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였다. 소위 소수민족의 개념이 그것이다. 소수민족이란 개념은 전술한 손문의 언급에 나와 있듯, 중국 경

내에서 인구적으로 소수인 종족집단이다. 이를 공산당은 새롭게 개념화하였고, 특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후 체계화 하였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 소수민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일천한 것이었다. 하나의 작은 반란그룹에 불과했던 공산당이 소수민족과 조우한 것은 대장정 기간이었다. 항일전쟁 기간에도 소수민족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소수민족 그룹과의 공동전선을 펼친 경험도 거의 없었다. 오히려 중국공산당에게 있어 중국 관내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게 된 계기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몽골과 조선인에 대한 공동전선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공산당이 중화민족의 개념에 있어, 단순하게 한족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을 포함하려는 이론적 시도를 이 기간에 시작하였고, 그것이 건국 후에 소수민족 정책 및 중화민족주의 형성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이다.

간략하면, 한족중심으로 발전했던 중국민족주의는 동아시아와의 관계에서 변용을 거치면서 포섭과 배제(구별)되는 발전을 하게된다. 전통적인 화이질서의 근대적 변용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변화는 과거 조공국들을 서구적인 독립국가로 인정하면서 구별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일본의 침략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항일을 위해 다른 인접민족과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나온 중국민족주의 외부적 표현이었다. 반면 내부적으로는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새롭게 소수민족을 범주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수민족을 새롭게 정의되는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위치시키려는 시도가 초기적인 형태로나마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즉, 공산중국의 성립은 한족 중심의 중국민족주의가 새로운 다민족 중화민족주의로 변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3. 중화민족주의의 완성과정: 공산중국

1) 개혁 개방 전 중국의 중화민족주의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19세기 서구의 침탈과 20세기 전반부에 이루어진 일본의 침략을 극복하고, 중국은 국제 사회의 하나의 독립국가로 성립되었다. 중국민족주의가 지향했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 독립적 국민국가는 달성되었다. 하지만 영토적인 통일성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내부적인 nation의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영토적인 통일성도 대만, 홍콩, 마카오는 물론 일부 소수민족지역이 아직 중국 경내로 편입되지 않아 불완전한 것이었다. 신생 중국의 목표는 먼저 영토적 통일성을 가능한한 이루고, nation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과거 nation은 한족 중심으로만 논의되었었다. 이제 중국은 다민족 국가가 되었다. 그 결과 nation의 작위적 형성 과정은 중국에서 소수민족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개되었다.

하지만, 195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영토적이고 행정적인 편입은 지체되었다. 새롭게 행정적으로 편입된 지역에서 소수민족을 식별하는 작업이 최우선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민족식별작업은 민족구역자치법과 함께 50년대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¹¹⁾ 그렇다면 중국의 민족주의는 이시기 어떻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그것은 항일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중화민족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이론적 시도가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족과 소

11)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진영,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민족연구』, 제 9호 (한국민족연구원, 2002년 9월).

수민족을 포함한 다민족에 기반을 둔 중화민족주의에 대한 구체화과정
이 시작된 것이다.

1951년 백수이(白壽彝)는 본국의 역사에 있어서 국토와 조국을 개념
화하는데 두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는 왕조 변천에 따라 영토가
변했던 역사적 영토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중국 영
토를 중국의 기본 영토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소수
민족을 포함한 중화민족이 다민족 대가정에서 살고 있으므로 중국 역
사는 현재의 영토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¹²⁾ 즉, 이제 독립국가인 중국이 국제정치에서 영토적인 주권을 인정
받는 국가로 새롭게 생성되었으므로, 그 영토 안에 있는 여러 민족을
포괄하여 새로운 nation의 창출을 주장한 것이다.

이런 현 영토내의 중화민족론의 창출이론은 중국의 역사를 재해석하
는 작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화이관에 기초한 한족 중심의
중국민족주의는 기본적인 변용을 겪게 된다. 이제까지 배격하였던 오
랑캐의 역사가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되고, 그 오랑캐의 후예들이 중
화민족의 일부로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사는 이전에는 중국
사와 변방민족사가 있었는데 그런 구별은 잘못된 것이며, 소수민족을
포함한 중화민족의 역사로 다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³⁾ 물론, 손
조민(孫祖民)같은 학자는 역사적 사실은 과거의 역사이며, 현재의 상황
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민족의 왕조는 단지 외국왕조라고

12) 白壽彝, “關於中國民族關係思想的幾個問題,”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 編, 『中國民族關係史論文集』(北京: 民族出版社, 1982), pp. 181-187.

13) 금가오, “在教學上如何處理祖國歷史上的民族關係,”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
室 編, 『中國民族關係史論文集』(北京: 民族出版社, 1982), pp. 76-79.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 역시 이민족 중 중국의 소수민족의 역사는 중국 역사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역사관은 한족과 다른 민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보도록 요구하였다. 통칭 오랑캐로 알고 있는 역사상 소수민족들 중의 많은 부분이 중화민족에 동화되거나, 그 지역이 현재의 중국 영토이므로 중국사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발해나 고구려도 중국사의 일개 지방 정권으로 새롭게 해석되었다. 또한, 변방민족의 중국에 대한 침략은 부인되고, 그것은 중화민족 내에서 발생한 민족 간의 전쟁으로 재 규정되었다.¹⁴⁾ 즉, 역사적으로 소수민족은 조국의 역사에 공헌하였으며, 민족 전쟁은 불가피한 민족관계의 모순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결과 현재까지 영웅으로 취급되는 인물들을 재평가하였다. 오히려, 민족관계를 돈독히 한 소수민족 인물이나 한족인물이 재조명을 받았다. 즉, 정통 왕조에 투항하거나 협력한 인물들을 재평가하였다.¹⁵⁾

간략하면, 신생 중국이 성립되면서 중국민족주의는 중화민족의 재구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새롭게 포함된 소수민족을 포섭하는 민족의 개념이 필요한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공산당은 이를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과 연관시켜서 진행하게 된다. 그 결과 전통적인 중국민족주의가 가진 한족중심의 논리를 변용하는 과정에서, 중화민족론은 필수적으로 중국의 역사에 대한 재해석으로 그 논쟁점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중화민족사의 형성이라

14) 孫祖民, “處理歷史上民族關係的幾個重要準則,”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 編, 『中國民族關係史論文集』(北京: 民族出版社, 1982), pp. 156-160.

15) 彭대웅, “關於我國歷史上民族英雄的評價問題,”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 編, 『中國民族關係史論文集』(北京: 民族出版社, 1982), pp. 678-91.

는 국가 과제는 중국민족주의 형성에서 가장 주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하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정치적인 격변기를 거치면서 중화민족주의의 재구성 작업은 중지되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2)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중화민족주의: 그 완성

1950년대에 나타난 이런 중화민족의 형성과정과 그에 기초한 역사의 재해석 그리고 중화민족주의의 변용은 개혁개방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학문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국가에 의한 소수민족 정책에서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된다. 개혁 개방 후 특히 강조된 것은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가 중국에서 고대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1950년대의 논쟁인 중국왕조와 이민족왕조라는 등식을 사실상 소멸시키고, 중국 역사 전반을 중화민족에 의한 역사로 재구성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민족이 세운 왕조들도 전통적인 조공제도에 속해있기 때문에 중국은 전통적인 다민족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의 중국은 문화적 의미의 중국으로, 그리고 지금의 중국은 이를 이어 받았으므로 중국은 고래로 다민족 국가라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중국학자들의 이론화 노력은 중화민족주의에 기초하여 중국 정부가 형성하고 있는 중화민족

16) 구구영은 중국의 다민족 국가형성과정을 하 시기에서 찾고 있다. 즉, 하(夏) 시기에 잉태된 이 개념은 사이(四夷)와의 교섭을 거치면서 진한시기에 한족이 형성되고, 삼국과 남북조 시기에는 민족의 대융합이 이루어져, 실제적인 다민족 국가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런 통일적 다민족 국가는 수당 시기에 크게 발전하여 다원적 문화를 꽃피우고, 이후 원 이래로 새롭게 확립된 민족관계에서 유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구구영, 『中國統一多民族國家的形成』(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92) 참조.

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개혁개방기에 다시금 새롭게 정의된 중화민족에 기초한 중국의 nation 개념은 “중화민족은 한족(漢族)을 주체로 하고 55개 소수민족을 포괄하는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대 가정이자 하나의 통일된 민족으로 정리할 수 있다.¹⁷⁾ 즉, 1950년대부터 진행된 소수민족을 중화민족에 포괄시키는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며, 한족을 주체민족으로 하여, 새롭게 한족의 민족주의 요소가 첨부되었던 것이다. 이제 nation 개념은 중국에서 학문적으로 이론화되었다. 서구적 의미의 nation을 변용하여 중국적 특색의 개념을 창출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인이라는 국민 개념이 확대되어 나타난 중화민족의 nation 개념인 것이다. 이것은 흡사 British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면서 English를 중심으로 하고, 통합한 지역인 켈트계의 Welsh, Scottish 및 Irish 일부가 포함된 것과 유사하다. 즉 우리가 영국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British이며, 그것은 근대적 국민국가인 영국의 국민을 의미함과 동시에 영국 국민으로 새롭게 생성된 British민족의 통합과 일체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영국과는 달리 한족을 중심으로 한 계서적(hierachical) 개념으로 nation을 만들었다. 스탈린(Stalin)의 민족관념 즉 민족소멸과 이후에 등장하는 과도기적 현대민족인 소비에트인(Soviets)이라는 개념과 서구적 민족이론의 중국화가 진행된 것이다. 중화민족에 해당하는 것을 ren(런:人)으로, 중화민족의 구성요소는 zu(주:族)으로 개념화 하였다.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은 nation으로, 족은 nationality

17) 이에 대한 사상적 흐름은 王柯, 『民族與國家:中國多民族統一國家的思想的系譜』(北京:社會科學出版社, 2001)을 참조하라.

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은 족의 상위 개념이다. 또한 인은 근대 국민국가를 성립시키는 민족(혼동을 피하기 위해 중화민족으로 지칭된다)으로, 족은 아민족(亞民族) 혹은 하위민족(sub-nation)을 의미하고 있다. 예로, Chinese nation(인: 中華民族)과 Han nationality(족: 漢族)는 구별되는 것으로 별도로 표현된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인은 한족이며, 중국에서 중국인은 국민의 개념인 중화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통칭 중국동포로 칭해지는 조선족도 중화민족의 일원이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이제 더 이상 조선인도 한국인도 아니다. 그들은 “조국(中國)과 뿔레야 뿔 수 없는 중화민족의 일부인” 차오시앤주(朝鮮族)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족들은 상위 개념인 인을 향해 끊임없이 민족관계를 통한 민족융합을 이루어 나아갈 것을 요구받으며, 그 결과 개체 민족은 미래에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이론상의 얘기이고, 실제적으로는 한족이 주체가 되는 국가에서 한족으로의 동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기에 나타난 다른 특징은 중국의 독특한 중화민족 관념과 통일적 다민족국가 개념에 기초하여 이 관념들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정책적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중국의 민족 정책, 특히 소수민족과 연관하여 다원일체(多元一體), 단기적 공존, 장기적 융합, 그리고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방침이 성립되고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이는 중화민족주의가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원일체란 중국은 다민족 사회이고, 다양한 인종적 배경과 지역적 특색이 있으며, 이러한 다원성을 일부 인정하는 토대에서 일체화한다는 의미이다.¹⁸⁾ 즉, 다원에는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고려가, 일체에는 목표 지향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일체에 있어서 주체 민족으로 한족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적 공존 장기적 융합이란 말 그대로, 한족과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단기적으로는 공존하나 장기적 목표는 새롭게 규정된 중화민족으로의 융합이라는 것이다. 융합은 상호작용으로, 한족도 소수민족의 관습 등에 동화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물론 주체민족의 문화로의 동화일 것이다.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방침은 소수민족의 정치적 민족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를 구별하여 대처한다는 것이다. 즉, 위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일체적 요소는 소수민족이 침범할 수 없는 요소이다. 하지만 언어나 풍습 등 문화적인 면은 보호되고 때로는 장려된다.

간략하면 개혁개방기 중국의 민족주의는 중화민족의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정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화민족의 민족주의의 양태를 규정하였다는데 있다. 중화민족인 중국인에서 중요한 점은 '인'의 개념이 단순하게 공민이나 국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nation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다. 즉, 일반 민족을 넘어서는 상위 민족 개념으로 중화민족을 창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독특하다고도 할 수 있고, 정치적이고 작위적이며 중국만의 자기중심적인 개념인 것이다.¹⁹⁾

18) 중화민족에 대한 개념을 사실상 완성한 다음 글을 보라. 費孝通, “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 費孝通, 『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9), pp. 1-36.

19) 한 예로 중화민족에 조선족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국적의 문제가 아닌 민족 개념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기초 하에서만 북한 핵문제 6자회담의 중국 측 대표였던 왕의(王毅) 주일대사(당시 외교부부부장)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는 “한국 언론과 사회 일각에서 조선족을 동포라고 표현하는데, 한-중 관계를 순조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조선일보』, 2001년 7월 16일). 즉, 중국동포는 중화민족으로 수렴되어 가는 과정 중의 ‘다민족 가정’인

또한 중화민족주의는 주체민족인 한족이 중심이 되되, 일정부분의 다원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19세기 이래 중국민족주의가 가지는 한족적 성격을 다시금 일부 인정하면서 이를 이론적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런 점에서 개혁 개방기 중국의 민족주의는 중화민족의 창출과 중화민족주의의 내연과 외포를 완성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3) 대 중화주의의 부활인가: 21세기의 중국의 민족주의

그렇다면 21세기 들어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민족주의는 어떤 방향인가?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담론상에 있는 중국의 중화민족론과 중화민족주의는 어떠한 변화의 양상이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대중화주의(大中華主義)의 부활이라는 가설로 그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대중화주의란 공산중국에서 새롭게 규정된 중화민족의 개념이 해외로 확대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확대는 현재 최소한 세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중화민족의 확대는 화교를 중화민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공산중국의 중화민족 개념이 가진 중국 국경내의 56개 민족을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해석한 지리적, 영토적, nation적인 개념을 넘어서, 전통적 민족개념인 혈연적인 개념을 다시금 시도하여, 포함시키는 것이다. 화교를 빼고 중국의 근대사를 논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라는 해석이 그것이다. 공식적으로 중국

중국인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중화민족 개념은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기초인 셈이다. 이진영, “한-중외교관계와 재중동포-재외동포법 헌법불일치 결정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8권 4호 (세종연구소, 2002년 12월)를 참조하라.

은 해외에 있는 중국계를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그것은 화교와 화인이다. 화교(華僑)란 외국에 있으나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반면 화인(華人)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중국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화교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므로, 당연히 중화민족의 일원이지만, 화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국적의 개념에 기초하여, nation으로 규정한 중화민족을 공식적, 이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현실은 다르다. 화교와 화인 모두 화교로 통칭하기도 한다. 이것은 1989년의 전국 교민사업회의에서의 표현에도 나타난다. “금후 교민사무부문과 외국적 화인의 거래 합작은 더욱더 넓어 질 것이다. 화교와 외국적 화인은 구별되면서 또 서로 연관을 갖고 있으므로” 그리고 “화인과 외국인은 구별되므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²⁰⁾ 또한 때로는 중화민족에 화예를 포함하기도 한다. 화예(華裔)란 중국인의 후예라는 뜻으로, 화인 중에서 현지인으로서의 동화가 많이 진행된 사람이다. 심지어는, 화교와의 혼혈로 태어난 화교토민의 경우도 부계 혈통적 측면에서 현지인과의 혼인으로 태어난 자녀는 주로 화교로 간주하기도 한다.²¹⁾ 즉, 공식적인 언급과는 달리 화교는 실제적으로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이런 화교의 중화민족화는 구체적인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방송에서 화교를 언급하면서 동포로 언급하고 있다. 동포(同胞)란 일반적

20) 정신철, “중국의 화교 화인정책 및 특징,” KIN주최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04년 10월), p. 9.

21) 吳主惠, 蔡茂豐 譯, 『漢民族의 研究』(臺北:臺灣商務印書館發行, 民國71年), p. 300의 화교 분류를 참조.

으로 중국계를 칭하는 표현이나, 특히 마카오, 홍콩, 대만의 사람들을 가르킨다. 이 세 지역은 특별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법률적으로 귀교, 교권을 구분하면서 중화민족의 사실상 범주에 포함시킨다. 귀교(歸僑)란 화교 혹은 화인으로 해외에 있다 중국에 귀국하여 적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권(僑眷)은 화교, 귀교들의 중국 거주 가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가족의 범위는 매우 넓어, 가족, 부모, 자녀 및 그 가족과 형제, 조부모, 외조부모, 외손녀, 외손자녀 및 기타 친속을 포함한다(이상 “귀교, 교권 권익보호법 2조”). 또한 중국에서 교무(僑務)란 화교사무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화교의 범위는 화교, 화인, 귀교, 교권을 모두 포함한다. 단지 화교에 대해서는 영사업무가, 화인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외교관계가, 귀교 및 교권에 대해서는 국내적 교무업무가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무란 국내와 영사, 외교 업무가 중첩된 분야로 중화민족적인 특색이 나타나는 영역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대중화민족주의의 양상은 특정 소수민족의 후예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 이는 중화민족의 일원이냐 하는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초기의 화교의 개념에는 한족의 이민 후예를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소수민족의 이민 후예도 포괄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령 회족(回族)의 화교문제로, 최근에 중국정부가 강조하는 명나라 시기의 정화(Zheng He, 鄭和) 원정대가 있다. 정화는 무슬림이었다. 정화 원정대가 동남아 및 아프리카 연안까지 그 후손들을 퍼뜨리면서, 그들이 과연 화교로 혹은 화인으로 중화민족의 일원이냐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조선족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로 나간 조선족의 친척은 중화민족의 일원인가? 일반 한족계통의 화교, 화인과 마찬가지로 교무사업의 일환으로 이들을 파악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중국에 귀국할 경우 귀교로써 특혜를 주어야 하는가? 물론 중국은 현재까지 소수민족의 경우 화교, 화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부 구체적 현실에서 이들은 화교나 화인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일본에서 공부한 후, 일본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의 경우, 재일교포 사회는 물론 재일 화교사회에서도 그 일원으로 간주하려고 한다. 사실상 이런 현상은 중화민족론이 가지는 논리적 모순에서 나타난 문제이다. 하지만, 이론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변화는 중화민족론의 확대에 그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더욱 중요한 요소는 중국 국내가 아닌 국외 화교 사회의 흐름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면서 자신의 고향 등에 투자했던 화교들이 종족-언어-지방적 차이를²²⁾ 극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자발적으로 중화민족의 범주로 들어오려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현상은 이러한 화교관련 중화민족 개념의 확대가 중국정부의 최근 외교정책에도 나타난다고 하는 점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가장 최근의 중국의 세계전략의 기초가 된 구호이다.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16차 당대회의 일관된 중심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다. 중국 공산당은 창립초기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전제로 창조”되었으며, 신중국의 설립(1949)은 “이 과정을 개시한 것”이라고 한다. 개혁개방은 “민족부흥의 새롭고도 강력한 생기를 부여한 계기”였고, 이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21세기 중국의 목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²³⁾ 현 국가주석이자 공산당 총서기인 후

22) 화교는 종족, 지역,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크게 廣東人, 南人(福建人), 潮州人(潮仙人), 客家人, 海南人, 山東人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 물론 호남인과 같은 다른 지방출신도 있으나 그 수는 미미하다.

진타오는 이를 화평굴기(和平崛起: 평화적으로 대국화한다)로 표현하고, 중화민족문화의 부흥을 역설하고 있다.

현재 중화민족의 개념을 범주화하면, 동심원(同心圓)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중국 내부에서 중화민족이란 “고래(古來)로 중국은 다민족 국가였으므로”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을 포함하여” 56개 민족이 중화민족의 일원이다. 그러나 화교도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포함되고 있다.²⁴⁾ 즉 정치적으로 창출한 nation의 개념과 과거적인 혈연적 민족의 개념이 혼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한족을 동심원의 중심이라 할 때,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보면, 한족-귀교와 교권-소수민족-홍콩 및 마카오 동포-대만 동포-화교-화인-화예-소수민족출신 화교라는 구조의 동심원을 이루게 된다. 이는 주체민족인 한족에서 점점 거리가 멀수록 정치적 신분에서 차이가 나고, 혈연적으로 구별됨을 의미한다.²⁵⁾ 현재 한족, 귀교 및 교권 그리고 소수민족은 중국공민으로, 홍콩 및 마카오 동포는 고도자치를 누리는 특별행정구민으로 주로 중국 국내 정치의 대상이며, 대만동포는 통일과 연관된 일국이체제(一國二體制)하의 특별 대상으로 파악된다. 또한, 화교, 화인, 화예에 대한 정책은 거주국의 상황에 따른 양자 및 다자관계 측면에서 구별되는 외교정책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재 중국의 중화민족 개념은 이러한 구분에 의해 주변부를 점차 중심으로 빨아들이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 논의된 중국민족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23) 예쯔칭 지음, 이우재 옮김, 『중국의 세계전략』(서울:21세기북스, 2005), pp. 93-94.

24) 費孝通, 앞의 책(1989) 참조.

25) 박병석, “중국 및 중국인의 호칭에 대한 고찰,”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한국사회이론학회 공동주최 2004년 후기 학술대회 (2004), pp. 1-26 참조.

특색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화이관에 기초한 중화질서가 해체되면서, 서구적인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중국에서도 민족주의가 생성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1절에서 논의하였다. 하지만 초기의 민족주의는 반청, 반외세를 기반으로 하는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였다. 이 한족중심의 민족주의는 중화민국이 성립되면서, 그 영역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을 어떻게 포함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대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단지, 항일운동 과정 중에 예전 중화질서의 일부로 조공국가로 여겨졌던 주변국가에 대하여는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이런 동등성은 2절에서 언급되었듯, 동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일부에게는 인정되고, 일부 중국 국내의 민족들에게는 보류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공산 중국에 들어서 3절에서 논의된 첫 의제는 다민족 국가의 구성과 연관된 중화민족 개념의 형성이었다. 중화민족은 이제 한족을 제외하고도 55개 소수민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초기의 새로운 중화민족 역사의 재구성은 개혁개방기에 들어서면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개념으로 변모하면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나, 역사의 재해석 면에서나 중화민족주의를 재구성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화민족주의는 다시금 확대되고 있다. 화교가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포함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명제가 정책의 목표가 될 정도이다. 중화민족 개념이 가지는 모순성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 출신의 화교를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파악하지는 입장이 나타난 정도로 그 개념은 확장되고 있다. 그 결과 한족이 중심이 되, 새로운 중국인의 형성이라는 공산중국의 중화민족 개념은 웨스트팔리아적인 nation의 구성을 넘어서, 이제는 과거 중화질서로의 회귀가 아닌가 하

는 의심이 들 정도에 이르렀다. 과연 그러한가? 현재의 중화민족 개념의 확장과 중화민족주의의 추세는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로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가? 미래적 평가야 어찌되었든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의제로 국가에 의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독특한 성격의 민족주의가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의 현 모습이며, 이런 점에서 중국의 민족주의는 일단 중화민족의 민족주의로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Ⅲ.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21세기 중국민족주의

그렇다면 현재의 중국 민족주의가 점차 세계화하는 21세기 동아시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한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동아시아 평화를 기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인가? 그리고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중국의 민족주의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중국 국내의 변화와 국제적인 변화와 도전을 중심으로 고찰해본다.

1. 국내적 변화의 요소

국내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세계화와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른 정치-사회 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중국은 세계화시기(2000-)에 접어들었다. 세계무역기구(世貿, WTO) 가입으로 세계경제체제로 편입되어 가고 있고,²⁶⁾ 그런 점에서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및 사회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의 기본 이념과는 배치되는 자본주의자들이 입당할 수 있도록 당의 규정을 바꾸었다. 물론 당의 영도적 지위는 위협받고 있지 않으나 사회 각 부문은 성장하고 있고, 그 결과 새로운 형태의 시민사회의 성장도 예견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국가와 공산당에 의해 주도되었던 중국의 민족주의도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의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 요소를 제기하고 있다.²⁷⁾ 그것은 중국 내의 점차 강화되는 민족주의 및 중화민족적 요소가 어떻게 세계화라는 틀과 상호 모순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²⁸⁾ 현재는 일견 수용하고 일견 변용하여 중국화(中國化)하는 작업을 중앙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점차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점증하는 국내적 도전 요소가 이런 작업을 어렵게 할 수 있을 있기 때문이다.

국내적인 도전은 먼저 중국 특유의 시각으로 중국의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세계사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런 보편적인 관심은 중국의 민족문제를 바라보는데도 일부 투영되고 있다. 새로운 관심 영역이 급속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새로운 관심영역은 잡거(雜居) 및 혼거(混居)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과 성시(城市) 즉 도시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이것은 90

26) 대표적인 중국경제학자인 호안강과의 공동연구를 보라. 胡鞍鋼/溫軍, “入世后民族地區的政策響應,” 『中國民族』(北京: 民族出版社, 2001), pp. 13-18.

27) 溫軍, “入世對少數民族地區的影響及其對策,” 『中國軟科學』(北京: 民族出版社, 2002), pp. 9-14.

28) 2001년 열린 한 학술회의의 주제이기도 하다. 勞煥強, “中國世界民族學會第七會員代表大會 全國學術討論會綜述,” 『世界民族』(北京: 民族出版社, 2001).

년대 인구유동이 활발해지면서 서부지역 및 각 소수민족지역에서 집거(集居, 집중거주)하고 있던 소수민족 들이 주변 도시는 물론 대도시로 유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³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들 민족에 대한 연구가 당의 기본적인 방침인 중화민족으로의 융합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진단하는 사회학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점이다.

다른 도전은 이제까지 부정적으로만 여겨졌던 지방민족주의 즉 소수민족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민족단결의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³¹⁾ 이는 중국에서의 민족주의의 양상을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려는 입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족을 포함한 여러 소수민족이 중국의 국경 바깥에 자신들의 형제 민족을 두고 있고, 개방은 많은 소수민족을 중국인으로 해외에 파견하거나 여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즉, 과경민족(跨境: 국경을 넘나드는)의 개념은 더 이상 중앙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를 볼 수 없게 한 것이다. 종교 등 민족문화와 각 민족에게 특이하는 나타나는 민족성 등 소질의 분석을 통해 해당 소수민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지만³²⁾ 어찌되었든 중국민족주의 측면

29) 胡令明, “城市少數民族流動人口的新情: 新問題,” 『民族論壇』(長沙: 湖南民族出版社, 2001), pp. 37-38.

30) 周競紅, “少數民族流動人口與城市民族工作,” 『民族研究』(北京: 民族出版社, 2001), pp. 8-14.

31) 徐杰舜 主編, 『中國民族團結考察報告』(北京: 民族出版社, 2004); 范宏貴, 『華南與東南亞相關民族』(北京: 民族出版社, 2004); 王建娥 陳建, 『族際政治 現代民族國家』(北京: 民族出版社, 2004).

에서는 변화의 모습이다.

세 번째의 민족주의와 연관된 도전은 한족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나타나고 있다. 종래 한족을 하나의 단일체로 주체민족으로 파악한데서 그치지 않고, 여러 방언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족성을 가진 한족이 존재한다는 가정과 그에 대한 연구는, 한족이 주체민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국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요약하자면 중국의 최근 경향은 중화민족주의에 기초한 중화민족 개념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 당과 국가의 방침이자 공식적인 중국민족주의의 모습이지만, 소수이나마 새로운 형태의 도전이 자라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도전은 중국민족주의의 근본적인 기초부분인 중화민족의 응취 형성이라는 부분부터 사실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현재 중국은 민족간 격차와 함께 빈부격차에 대한 해소방법으로 2005년 상반기부터 중국정부가 구호로 내세우는 조화로운 사회건설(和諧社會)의 입장에서 중국의 민족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서부대개발, 동북지역 개발 프로젝트도 이의 일환이다.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에 대해 민족을 사상하고, 인민과 사회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대두가 현재 중국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국내적 도전 요소에 대한 반응이다. 즉, 민족이나 민족주의의 관점에서가 아닌 중국 사회 문제의 일부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런 시각이 얼마만큼 중국 내에서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민족주의를 포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민족주의는 중국의 국내문제만이 아니라 외부와 연결된 국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다.

32) 陈玮, “努力解决好西部大开发中民族宗教方面的几个重要问题,” 『攀登: 哲社版』(西安), pp. 51-54.

2. 국제적 변화와 도전요소

중국민족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도전은 중국이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침탈당하는 약소국이 아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하나의 강대국인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런 점은 중국민족주의가 이제 더 이상 저항과 수세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공존의 민족주의로 변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사회의 일원으로 그 외교정책에서 국제평화적인 세력임을 역설하고 있다. 2000년 당시 중국의 국가주석이었던 지양 찌민은 UN 밀레니엄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의 외교정책의 근간을 밝혔다. 여기에서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세계무대에 등장함을 알림과 동시에 중국은 세계평화를 위한 세력임을 천명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민족주의에 대한 국제적 도전은 중국이 강대국에 걸맞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국제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비록 현재는 중국이 중국 특유의 체제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준칙에서 중국이 얼마나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현재와 같은 민족주의적 경향으로는 국제사회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국민족주의가 세계화하면서 현재 충돌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접국가와의 관계이다. 소수민족지구는 주로 국경에 위치하여 있고, 점차 상품경제의 방향이 국제화하고 있다. 특히, 9-11테러로 인한 이슬람탄압의 결과 중앙아시아 변화가 지속되면서, 인접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기존의 중국이 보여준 민족 개념과 민족주의가 주변국가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³³⁾ 대표적인 것이 한국과 연관된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에 관한문제이다. 최근 주목되는 또 하나의 인접국과 연관된 중

국 민족주의의 문제는 동남아시아와의 관계이다. 화교의 80%가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중국은 동남아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화교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자국의 안마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민족주의의 최근 경향이 소수민족에서 출발하여, 한족 내부를 거쳐 이제 해외의 화교 그리고 화교와 중화민족과의 관계로 그 외연을 공세적 차원에서 점차 넓히고 있기 때문에³⁴⁾ 조만간 외교적 분쟁 요소가 될 개연성이 많다.

현재의 추세로 중국의 민족주의가 변화한다면, 한국은 물론, 몽골,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각 국과의 크고 작은 분쟁의 요소는 상존되어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점도 중국의 민족주의가 직면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중국 국내의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IV. 결론

19세기 이래 중국의 민족주의는 각 시대에 맞게 변용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이라 할 중국의 몰락과 그에 따른 새

33) 劉元春, “全球化趨勢下的民族与宗教問題學術研討會綜述,” 『世界宗教研究』(北京: 民族出版社, 2002), pp. 144-148.

34) 한족연구는 이제 그 외연을 화인(華人)연구로 넓혀, 그 기원과 구역성 그리고 변모과정 즉 (해외로의) 확산 과정(漢族源流及民族關係, 華人族群与區域性研究)으로 이행되고 있다. 徐曉望, “漢民族研究2000年國際學術會議綜述,” 『民族研究』(北京: 民族出版社, 2001), pp. 103-105.

로운 세계질서에서 중국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중국의 민족주의는 초기에 종족적인 기반에 기초한 저항적이고, 배제적인 민족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전통적인 화이관에 기초하여 성립된 중국 특유의 개념과 논리는 점차 정비되어 가면서 서구적인 이론과 접합을 시도하였다. 공산중국에서 이루어진 중화민족론 및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중국민족주의가 100여 년간 추구해왔던 목표인 웨스트팔리아적 국제체제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새로운 근대 국민국가와 nation을 창출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민족주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새롭게 창출된 중화민족론과 그에 기반한 민족주의는, 내부적으로는 더욱 정교해지고자 역사를 재구성하기 시작하였고, 외부적으로는 팽창적인 경향을 보이고 시작하였다. 문제는 현재 중국이 점차 강대국화 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민족주의가 보여주는 현재의 공세적이고 배제적인 성격이 변용되지 않는다면, 주변국가와의 분쟁요소가 상존하게 될 것이라는데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좀 더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하는 국력에 걸맞게 좀 더 공세적으로 변하면서 주변국가에게 중국의 민족주의에 복종토록 요구할 것인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현재의 중국민족주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중국의 민족주의는 지난 100여 년간 보여준 관성을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 시대,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새롭게, 소수이지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민족주의의 질주는 제어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요소가 이를 제어할 것인가? 제어는 오히려

중국 내부의 분열을 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제어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인접국가와의 분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현재의 잠정적이고, 불안한 상태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 해답은 아마도 동아시아에서 민족주의 경향을 완화하려는 상호 노력에서만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참고문헌〉

박병석, “중국 및 중국인의 호칭에 대한 고찰,”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한국사회이론학회 공동주최 2004년 후기 학술대회(2004).

예쓰청 지음, 이우재 옮김, 『중국의 세계전략』(서울:21세기북스, 2005).

이진영, “한-중외교관계와 재중동포-재외동포법 헌법불일치 결정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8권 4호 (세종연구소, 2002년 12월).

_____, “조선인에서 조선족으로: 중국 공산당의 연변지역 장악과 정체성 변화(1945-1949),” 『중소연구』, 제26권 4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 센터, 2002년 12).

_____, “아이덴티티정치와 동북아 지역 협력,” 『한국과 국제정치』, 제17권 1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1년 봄-여름).

_____,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민족연구』, 제 9호 (한국민족연구원, 2002년 9월).

_____,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이론적 기초에 관하여,” 『아태연구』, 제 6권 2호 (경희대학교, 1999년 12월).

천성림, 『근대중국 사상세계의 한 흐름』(서울:신서원, 2002).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1991).

Chow, Kai-wing, “Imposing Boundaries of Blood: Zhang Binglin and the invention of the Han ‘Race’ in Modern China” in Dikotter,

- Frank, ed., *The Construction of Racial Identities in China and Japan* (London: Hurst & Company, 1997).
- Dikotter, Frank, ed., *The Construction of Racial Identities in China and Japan* (London: Hurst & Company, 1997).
- Dreyer, June Teufel, *China's Forty Millions. Minority Nationalities and National Integr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 Levenson, Joseph R., *Confucian China and its Modern Fat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8).
- Liao, Kwangsheng, *Antiforeignism and Modernisation in China*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96).
- Smith, Anthony, *Theories of Nationalism* (London: Duckworth, 1983).
- Zheng, Yongnian, *Discovering Chinese Nationalism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구구영, 『中國統一多民族國家的形成』(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92).
- _____,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 編, 『中國民族關係史論文集』(北京: 民族出版社, 1982).
- 금가오, “在教學上如何處理祖國歷史上的民族關係,”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 編, 『中國民族關係史論文集』(北京: 民族出版社, 1982).
- 勞煥強, “中國世界民族學會第七 會員代表大會 全國學術討論會綜述,” 『世界民族』(北京, 2001).
- 白壽彝, “關於中國民族關係思想的幾個問題,”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 編, 『中國民族關係史論文集』(北京: 民族出版社, 1982).
- 范宏貴, 『華南与東南亞相關民族』(北京: 民族出版社, 2004).
- 費孝通,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9).
- 徐曉望, “漢民族研究2000年國際學術會議綜述,” 『民族研究』(北京, 2001).
- 徐杰舜 主編, 『中國民族團結考察報告』(北京: 民族出版社, 2004).

- 孫祖民, “處理歷史上民族關係的幾個重要準則,”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編, 『中國民族關係史論文集』(北京: 民族出版社, 1982).
- 劉元春, “全球化趨勢下的民族与宗教問題學術研討會綜述,” 『世界宗教研究』(北京, 2002).
- 吳主惠, 蔡茂豐譯, 『漢民族的研究』(臺北: 臺灣商務印書館發行, 民國71年).
- 王柯, 『民族與國家: 中國多民族統一國家的思想的系譜』(北京: 社會科學出版社, 2001).
- 王建娥 陳建, 『族際政治 現代民族國家』(北京: 民族出版社, 2004).
- 周競紅, “少數民族流動人口 城市民族工作,” 『民族研究』(北京, 2001).
- 陈玮, “努力解决好西部大開發中民族宗教方面的重要問題,” 『攀登: 哲社版』(西安, 2001).
- 팽대응, “關於我國歷史上民族英雄的評價問題,”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編, 『中國民族關係史論文集』(北京: 民族出版社, 1982).
- 胡鞍鋼/溫軍, “入世后民族地區的政策響應,” 『中國民族』(北京, 2001).
- 胡令明, “城市少數民族流動人口的新情: 新問題,” 『民族論壇』(長沙, 2001).